2018 스크린 결산 성적표, 누가 울고 웃었나

전체 누적 관객 '6년 연속' 2억 명 돌파

올해에도 관객들의 '극장 사랑'은 뜨거웠다. 전체 누적 관객 2억명을 돌파하면서 '6년 연속' 2억 명 돌파라는 쾌거를 이뤘다.

한국영화진흥위원회 통계에 따르면(17일 오전 4시 기준) 올해 1791편의 영화가 개봉됐고 2981이 상영됐다. 한국영화는 998편, 외화는 1983편이 국내 극장을 찾았다. 1월에는 지난해 개봉한 '신과함께-죄와 벌'과 '1987'이 압도적인 강세를 보이다 '코코'를 시작으로 2018년 신작들이 하나둘 흥행 기록을 써내려갔다.

올해 '1000만명'을 넘어선 영화는 한국 영화 1편과 외국 영화 1편으로 총 두 편. '신과함께-인과 연'과 '어벤져스: 인피티니 워'였다. '신과함께-죄와 벌'의 후속작인 '신과함께-인과 연'은 1227만명을 동원하면서 2018년 박스오피스 1위에 올라섰다. '신과함께-죄와 벌' 또한 올해 극장가에서 587만명(총 1441만명)을 모아 2018년 박스오피스 5위를 기록했다.

'신과함께-인과 연'과 더불어 '1000만 돌파' 영화이자 2018년 박스오피스 2위의 작품은 '어벤져스: 인티피니 워'였다. 1121만명의 선택을 받았다. 3위는 대한민국에 다시 한 번 퀸 신드롬을 불러일으킨 '보헤미안 랩소디'(794만명)이었으며 4위는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658만명)이었다. 6위와 7위도 각각 '쥬라기 월드: 폴른 킹덤'(566만명)과 '앤트맨과 와스프'(544만명)로 외화가 차지했다.

8위는 조인성과 남주혁 주연의 '안시성'(543만명)이었으며 9위는 '블랙팬서'(539만명)였다. 10위는 지난해에서 장기 흥행을 이어온 '1987'이었다. 2018년 528만명을 만난 이 작품은 최종 관객수 723만명을 기록했다.

TOP10을 살펴볼 때 7~900만명대의 작품이 거의 없고 '중박 흥행'의 500만명대의 작품이 대거 포진된 점이 눈길을 끌었다. 또한 놀라운 건 TOP10에 MCU(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작품이 무려 3작품이나 입성했다는 것.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앤트맨과 와스프' '블랙팬서'가 관객들의 큰 사랑을 받으면서 MCU에 대한 한국 팬들의 신뢰와 애정을 '관객 수'로 증명했다.

11위는 유해진 조진웅 이서진 염정아 등이 출연한 코미디 영화 '완벽한 타인'이 차지했다. 이 작품은 527만명을 극장가로 불러모았다. 12위는 조진웅을 비롯해 류준열 진서연 그리고 故 김주혁이 열연한 '독전'(506만명)이었다. 13위 역시 조진웅의 주연작. 그를 비롯해 황정민 이성민 주지훈 등이 출연하고 윤종빈 감독이 연출한 '공작'(497만명)이 13위를 기록했다.

14위는 '베놈'(387만명) 15위는 '데드풀2'(378만명) 16위는 '암수살인'(375만명)이 자리 잡았다. 이어 '코코'(351만명) '그것만이 내 세상'(341만명) '마녀'(318만명) '탐정: 리턴즈'(315만명)가 2018년 박스오피스 TOP20 리스트에 올랐다.

모든 영화가 만족스러운 성적표를 받은 건 아니다. '관상'을 잇는 역학 시리즈 '궁합'(134만명)과 '명당'(208만명) 모두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했다. '물괴'(72만명) '염력'(99만명) '인랑'(89만명)은 손익분기점의 절반에도 채 도달하지 못하고 쓴 맛을 봐야했다.

반면 의외로 선전한 영화도 있었다. 손익분기점이 60만명이었던 '곤지암'은 267만명을 기록하면서 대박 흥행을 터뜨렸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260만명) '리틀 포레스트'(150만명)와 '서치'(294만명) '너의 결혼식'(281만명)도 손익분기점을 훌쩍 넘으며 흥행했다.

한편, 지난해 한국 영화는 12월초까지 매출액과 점유율, 관객 수 등 전반적으로 외화에 밀리다 연말에 다다라서야 '강철비' '신과함께-죄와벌' '1987'의 흥행으로 외화를 이기고 체면치레에 성공했다. 하지만 올해에는 본격 겨울대전이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매출액과 관객 수에서 우위에 올라섰다.

19일 겨울대전을 통해 한국 영화는 완벽한 '굳히기'에 돌입할 예상된다.

한국 영화로는 '내부자들' 우민호 감독이 연출하고 송강호가 주연을 맡은 '마약왕'과 '써니' 강형철 감독과 도경수가 만난 '스윙키즈'가 외화로는 DC의 신작으로 제임스 완 감독의 연출작 '아쿠아맨' 등의 대작들이 나란히 개봉한다. 26일에는 흥행 배우 하정우과 이선균 주연의 'PMC: 더 벙커'도 극장가를 찾는다.

박수칠 때 떠나는 워너원, 신인상→대상 유종의美 제대로

그룹 워너원(강다니엘, 박지훈, 이대휘, 김재환, 옹성우, 박우진, 라이관린, 윤지성, 황민현, 배진영, 하성운)이 박수칠 때 떠난다. 예정된 12월 31일을 끝으로 계약을 마무리하기로 확정한 것.

워너원 소속사 스윙엔터테인먼트 측은 12월 18일 오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워너원은 예정대로 오는 12월 31일 계약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계약은 이날을 기점으로 마무리되지만 공식 활동은 1월까지 이어진다. 이달 예정돼 있는 가요 시상식 등 참석을 확정한 일정을 마무리한 이후 해산하겠다는 입장이다.

워너원과 팬 워너블의 이별은 일찌감치 예정된 수순이다. 당초 2018년 12월 해산을 약속하고 시작한 프로젝트 그룹이기 때문. 그간 수 차례 활동 기간 연장설, 일부 멤버 유닛 결성설 등이 불거졌으나 소속사 측과 멤버들 모두 확정된 바가 없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지난 11월 첫 정규앨범 발매 기자간담회에서 하성운은 연장설에 대해 "연장에 대해서는 우리끼리 이야기를 한 적이 없던 것 같다. 일단 앨범 준비에만 힘쓰고 있는 상태"라고 말한 바 있다.

이대휘는 "일단 우리가 정규앨범으로 컴백했기에 아직 끝을 논하기 이르다는 생각이 들어 하루하루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끝을 아직 정확히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우리는 판단이 들었다. 아직 정확하게 어떤 논의가 된 바는 없다. 일단 정규앨범 활동을 마치고 향후 이야기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팬들과의 마지막 만남은 1월 말 예정된 마지막 단독 콘서트다. 워너원 측이 1월 25일~27일 단독 공연을 위한 대관을 마친 상태라는 보도도 나왔지만 정확한 공연 날짜는 공표되지 않은 상황.

워너원 측은 지난 11월 "1월 콘서트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이후 계약 종료와 함께 '마지막 공식 스케줄이 될 1월 콘서트를 통해 팬들과 함께 아름답고 소중한 시간을 보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팀 해산은 1년6개월여 만이다. 지난해 6월 16일 화제 속 막을 내린 Mnet 보이그룹 서바이벌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즌2'를 통해 탄생한 워너원은 지난해 8월 7일 첫 번째 앨범 '1X1=1(To BE ONE)'을 시작으로 프리퀄 리패키지 '1-1=0(NOTHING WITHOUT YOU)', 두 번째 미니앨범 '0+1=1(I PROMISE YOU)', 첫 번째 정규앨범 '1''=1(POWER OF DESTINY)' 등을 연달아 발매하며 신드롬에 가까운 인기를 구가했다. 스페셜 앨범 '1÷x=1(UNDIVIDED)'를 통해 유닛 4팀을 결성, 완전체와는 색다른 매력을 보여주며 사랑받았다. 특히 첫 번째 정규앨범으로 연산 시리즈의 대미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그간 거둬들인 성적도 화려하다. '프로듀스 101' 당시 미션곡으로 음원 차트 상위권을 휩쓸었던 이들은 데뷔 앨범 '1X1=1(To BE ONE)'을 발매한지 1시간 만에 타이틀곡 '에너제틱(Energetic)'으로 7개 음원 차트 1위 석권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이를 시작으로 마지막 앨범 타이틀곡 '봄바람'까지 모든 앨범 타이틀곡을 각종 차트 정상에 올려놓으며 인기를 끌었다. 컴백했다 하면 음반 차트 1위도 워너원의 몫이었다.

데뷔 앨범과 프리퀄 리패키지 앨범으로는 140만장이 넘는 합산 음반 판매고를 올리며 신인으로서 이례적으로 '밀리언셀러'로 등극했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 개최된 가요 시상식에서는 신인상과 주요 부문을 휩쓸며 '괴물 신인'의 탄생을 알렸다.

활동 마무리를 앞두고는 그간 과분한 사랑과 응원 메시지를 보내 준 팬들에게 보답하겠다는 일념 하에 더욱 공연, 앨범 준비에 매진했다. 부단히 쏟은 땀방울 덕에 '1''=1(POWER OF DESTINY)'으로는 초동 판매량(발매 첫주 판매량) 43만8,000장 돌파라는 자체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2018 멜론뮤직어워드'에서 대상 중 하나인 올해의 레코드상을 수상하는 등 유종의 미도 제대로 거뒀다.

무엇보다도 올해 컴백 기자간담회마다 밝힌 "2018년을 워너원의 황금기로 만들 수 있도록 좋은 노래와 무대를 준비해 선물해드리겠다"라는 팬들과의 약속을 어김없이 지켜냈기에 의미있는 한 해였다. 1월 공식 활동 종료를 끝으로 더 이상 완전체 워너원을 볼 수 없을지라도 많은 팬들의 가슴 속에 '참 좋은 청춘'으로 기억될 전망.

소속사 측은 "약 1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멋진 모습을 보여준 11명의 청춘, 워너원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의 새 출발과 활동 또한 응원할 예정이다. 그동안 워너원을 사랑해주신 국내외 많은 팬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워너원 멤버들의 앞날을 응원하고 축복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레드벨벳 'Bad Boy', 美 빌보드 선정 '올해의 베스트 K팝' 1위

'독보적 K-POP 걸그룹' 레드벨벳(Red Velvet,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소속)의 히트곡 'Bad Boy'(배드 보이)가 미국 빌보드가 선정한 '올해의 베스트 K-POP 송 20' 1위에 올랐다.

레드벨벳은 미국 유명 매체 빌보드가 지난 17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비평가들이 선정한 올해의 베스트 K-POP 송 20(The 20 Best K-pop Songs of 2018: Critics' Picks)'에서 정규 2집 리패키지 타이틀 곡 'Bad Boy'로 1위를 기록해, 글로벌 파워를 실감케 했다.

특히, 빌보드는 'Bad Boy'에 대해 "무성한 사운드와 비비드한 뮤직비디오를 기반으로 레드벨벳의 팜므파탈적인 정체성을 만들어냈다. 'Bad Boy'는 R&B의 매끄러움을 보여줌과 동시에 올해 가장 완벽한 레드벨벳의 작품으로 인정받았다"라고 호평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이번 발표에서 5위를 차지한 샤이니 정규 6집 EP.3 타이틀 곡 '네가 남겨둔 말(Our Page)'에 대해서는 "4명의 멤버들은 희망찬 찬미를 불렀다. 샤이니의 단합된 목소리가 부풀어 오르면서 감정적인 펀치를 날린다"라고 언급했으다.

11위에 랭크된 슈퍼주니어 정규 8집 리패키지 타이틀 곡 'Lo Siento'(로시엔토)는 "K-POP 밴드 최초로 빌보드 라틴 차트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어, 스페인어, 영어 등 3개 국어로 제작된 이 곡은 단순히 컬래버레이션 곡이 아닌 다양한 아티스트 및 음악 산업을 대표하는 곡으로, 추후 컬래버레이션의 표본이 될 곡 중 하나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18위에 선정된 엑소 정규 5집 타이틀 곡 'Tempo'(템포)는 "EXO는 K-POP 그룹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보컬라인을 보유하고 있어, 다른 그룹이 'Tempo'의 아카펠라 구간을 시도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Tempo'는 결코 플레이리스트에서 벗어날 수 없는 노래"라고 덧붙였다.

오늘의 운세 2018년 12월 19일 수요일 (음력 11월 13일)

▶쥐띠 '최선을 다하자'는 말을 잊지 않고 노력할 때 사방에서 돕는다. 2, 5, 10월생은 약간 얽힌 애정 문제도 쉽게 풀리겠다. 서로 양보하는 자세로 임하라. ㄱ, ㅂ, ㅅ, ㅇ 성씨는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북쪽이 길.

▶소띠 ㅂ, ㅊ, ㅎ 성씨는 두 갈래 길에서 마음고생하니 건강 또한 염려된다. 3, 4, 8, 12월생은 더욱 신중히 생각해 투자하라. 내 앞길도 가리지 못하면서 상대를 도우려다가 후회할 일 생긴다. 지혜롭게 대처할 때 애정과 사업에서 큰 성과가 있겠다.

▶호랑이띠 열과 성을 다해도 시간만 갈 뿐이어서 실망한다. 그래도 정신적 도움의 손길로 육체 피로를 잊는구나. 1, 3, 7월생은 차근차근 재정비해 재기하면 큰 성과가 있겠다.

▶토끼띠 생각은 끝이 없고, 결론은 허무하나 자신감을 품으라. 도움의 손길이 온다. 87년생은 인생을 허망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힘내라. 쓴 역경 뒤에 단 보람이 있다.

▶용띠 어떤 변화가 올지 예측 불허이니 현 상태를 고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1, 2, 9, 10월생은 애정운이 좋으나 욕심을 버리고 마음의 결정을 할 것. ㄴ, ㅇ, ㅊ 성씨 예능 종사자는 오늘 하루 대길. 컨디션 조절을 잘하라.

▶뱀띠 ㄹ, ㅇ, ㅊ, ㅍ 성씨는 약속된 일만 생각하다가 지금 하는 일에 문제 생길 수. 5, 7, 11월생은 애정 문제로 오랜만에 두 배 기쁨이 따르겠다. 기혼여성은 갑작스러운 나들이를 삼가고, 질병에 유의하라. 금전운이 서서히 열린다.

▶말띠 작은 일을 하다가 큰 생각을 하게 되지만 여건이 맞지 않아 그냥 지나칠 수. ㄱ, ㅁ, ㅈ, ㅌ 성씨는 애정을 급하게 생각하면 복잡하니 여유를 가지라. 3, 4, 8, 12월생은 건강에 신경 써야 할 때. 파란색이 건강을 주는 색이다.

▶양띠 금전 문제로 고통이 따르지만, 참고 인내하면 차차 여유로워진다. 3, 7, 10월생은 남쪽에서 옛 친구를 만나 새롭게 구상하고 계획해도 애정으로 발전하지 못할 수. ㅅ, ㅈ, ㅎ 성씨는 늦은 시간 희소식 들려오니 천하를 거머쥔 기쁨의 날이구나.

▶원숭이띠 기다리던 열차를 놓치는 격이니 서둘러 일 처리하라. ㄴ, ㅅ, ㅇ 성씨는 주위에 오랜만에 인정해 주는 사람 많아지고 금전 이득이 생길 수. 9, 10, 12월생은 검은색이 길. 동쪽 사람이 귀인이다.

▶닭띠 동, 서쪽 귀인은 정신적인 피로를 풀어주지만 육체적인 피곤은 풀어주지 못하니 너무 기대하지 말라. 3, 5, 9월생은 지금 고통을 친척에게 말할 때 작은 지혜를 얻을 수 있고, 필요한 도움도 받는다. ㅅ, ㅈ, ㅍ 성씨 애정은 시간 낭비다.

▶개띠 2, 5, 12월생 막힌 애정 문제는 해소하지만, 과로로 육체 피로가 우려되니 일찍 귀가하라. ㅁ, ㅅ, ㅂ 성씨는 여행을 계획했다면 취소할 것. 주위 도움으로 애정은 꽃필 듯. 음식업, 전기·가스, 섬유계 종사자는 북, 서쪽이 길.

▶돼지띠 사소한 의견 차이로 서로 불만을 갖고 헤어지나 금방 후회한다. 1, 3, 8월생은 근심 걱정이 조금씩 없어지나 했더니 금전 문제로 신경 쓸 일이 생기겠다. 동쪽에서 도움 줄 자 나타날 수. 자존심을 버리고, 도움을 받아 일어서라. 크게 대성할 수.